



벨라루스의 상황에 대한 성명: 대중은 왜 더 이상 루카셴코의 정권을 믿지 않는가?

다음은 벨로루시에서 전개되는 상황에 대한 진술이다. 총파업! 루카셴코 정권 타도! 사회주의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마르크스주의자로서 우리는 지금 벨로루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치적 위기는 우연적인 상황의 우연이나 특정 외국 국가의 호기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위기의 결과다. 루카셴코가 민영화 과정을 중단하고 일반적으로 국가 재산과 경제 핵심 분야의 지시적 계획 요소를 보유했던 90년대 중반부터 20년 동안 벨로루시는 구 소련에서 유일한 경제 안정의 섬으로 남아 있었다. 불행히도, 20세기 역사의 전체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 시장에서, 즉 지시적인 계획경제가 없다면, 국가 재산 자체가 노동자 계층의 초폭발과 억압을 통해서만 생산력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루카셴코 집권 말기에 보았던 서민과 자영업자(흔히 가장 억압받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공격이 연결되는 것은 바로 이것과 함께다. 보나파르트 정권은 민영화 및 세계 제국주의 체제로의 완전한 통합을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관료주의와 그와 밀접하게 연계된 국가 부르주아지의 그 부분과 점점 모순되고 있다. 이 세력은 그와 그의 카마틸라가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며, 오늘날 그들은 그의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진로를 설정했다.

한편, 긴축정책과 노동자 계층과 그 조직의 권리에 대한 공격은 루카셴코에게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대다수의 노동자들로부터(적절히 수동적인) 지지를 빼앗았다. 노동자의 이익에 대한 공격은 민영화 정책, 정년 인상, 사회 혜택 폐지, 현재의 고용 계약 제도 등에서 구체적인 표현을 찾아냈다. 이런 상황에서 루카셴코 보나파르트 정권의 몰락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그의 패배가 자동적으로 자유시장 지지자들의 승리와 완전한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벨라루스의 노동자 계층은 최근 며칠과 몇 시간 동안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보여주었다. 부족한 것은 정치적 리더십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벨라루스의 공산주의 운동은 이념적 원칙보다는 루카셴코와 그의 카마틸라에 대한 충성심에 따라 분열되어 있다. 대립의 양쪽인 CPB와 "공정 세계"는 덜 악랄한 현실 정치의 늪에 빠져 있었고, 따라서 사회 혁명의 전망은 포기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의 사건들이 어느 순간 벨라루스 프롤레타리아를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혁명당의 지도 아래 역사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혁명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폴란드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포용할 것이다. 혁명적 상황의 발전은 불가피하며 이제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요소인 노동자 계층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끌 수 있는 진정한 공산당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정당이 현재의 프로그램적, 정치적 한계로 인해 오늘날 벨로루시에 존재하는 좌파 조직에 근거하여 건설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국제 마르크스주의 경향(International Marxist Strrend)이 수년간 옹호해 온 그러한 생각들, 즉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의 사상에 근거해 볼 때 그러한 기구의 창조는 가능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면 올바른 전술로 대중을 정복하고 벨로루시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엔 대중이 무엇을 할 것인가?

루카셴코의 보나파르트주의 정권은 조만간 그의 타도로 끝날 정치적 위기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평화적 선거 전환 가능성은 8월 9일부터 10일까지 개표 당일 밤 정권의 안보기구에 의한 노골적인 위변조와 폭력행위로 차단된 것은 물론, 경찰의 폭력이 계속돼 사태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다

1994년부터 벨라루스의 대통령을 지냈고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린 알렉산더 루카셴코 당선에 대해 벨라루시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위대는 최루탄과 고무탄, 그리고 탄환을 맞았다. pic.twitter.com/1Zo609QscX

— AJ+ (@ajplus) 2020년 8월 10일

정권의 위기는 (노동자의 노동조합과 정치조직의 자유를 포함한) 민주주의의 장기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로 최근 몇 년간 인구의 생활수준 저하, 그리고 주로 노령 노동자의 생활수준의 저하가 원인이 되었다. 계약 제도, 혜택 삭감, '기생충'에 대한 법, 기타 정권의 공격 등은 국가 차원에서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벨라루스를 소비에트 계획경제의 일종의 지속으로 보려는 사람들은 깊은 실수를 저지른다: 기업의 민영화와 가격 규제 완화의 반사회적인 정책은 현 정권에 의해 오랫동안 추구되어 왔다

지금 대중은 정치혁명의 과제를 의제로 삼고 있는데, 그 본질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정권으로의 이행이다.

우리는 민주적 자유를 완전히 확립하고, 특히 서민들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이익과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민중의 염원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부르주아 민주 정권 하에서 그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환상을 경계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그것의 설립이 긴축 정책을 중단시킬 어떤 보장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현 상황에서 이러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요구만으로는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이미 완전히 불충분하며, 특히 집권하게 된 지금 제1야당 지도자들의 정치적 면모를 고려한다면 이미 시행된 반(反)라부아적 정책만 계속하게 될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최소한으로 정권에 의해, 그러나 새로운 커버아래. 게다가, 이 같은 지도자들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그것으로부터 충분히 강한 압력이 있다면, 정권에 기꺼이 굴복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자명한 진리를 반복해야 한다. 우리 시대에는 모든 나라에서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혁명적인 계급이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프롤레타리아.

노동계급과 그 핵심인 산업 노동자들이 정치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진보적인 사회 변화를 위한 투쟁에서 그것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스스로 민주적 자유를 확대하려는 투쟁과 더불어, 노동자 계층과 그 대표들은 동시에 낡은 반노동자 대책(계약제도 등)과 가능한 새로운 대책(공기업 사문화, 정리해고 등)에 대해 지향하는 그들만의 '사회적 의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이익을 진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 상태에서 생명의 임대차계약을 받아들인 서민과 그 조직들이 방어적인 정책에서 공격적인 정책, 즉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치기구(의회)를 결성하여 정치권을 장악하는 데 이용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그는 노동자들의 민병대와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창조했다. 이것이 유일한 장기적 길이다. 대안은 재앙이다.

우리는 루카셴코 정권을 옹호하는 특정 조직(러시아 연방 공산당, 벨라루스 공산당 등)의 반동성명을 규탄한다. 우리는 현재의 시위에서 극우파가 거의 완전히 배제되고, 중대한 국가 및 언어적 모순이 없고, 벨라루스 국민 사이에 반파시스트 사상의 인기가 높으며, 제1차 세계대전의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기억 때문에 "우크라이나 시나리오"가 반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나와 독일의 파시스트 점령. 시위의 가능한 반동적 변혁(또는 최소한 진보주의자들의 시위 독점)을 막는 보장 중 하나는 노동자 계층과 그 정치 대표들의 가장 광범위한 참여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자본주의 정부가 국가의 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우선 러시아, EU, 미국 같은 제국주의 강대국들과 블록들에 의해 허용된다. 벨라루스 민족의 자결주의에 반하는 어떤 시책도 명백하게 반동적이다. 오늘날 이 자기결정론에 맞서 '왼쪽에서부터'를 외치려고 하는 러시아 사람들은 실제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빨간' 미사여구로만 치장된 제국주의로 반파시즘을 대체하고 있다.

대중들 사이에서 지지를 잃은 루카셴코는 거의 전적으로 관료조직의 힘에 의존한다. 그럴 경우 민중의 압력에 의해 지배계급과 국가기구에서 분열이 벌어지고, 정치적 과정에 민중이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야당의 진보적 엘리트와 타협을 맺으려는 시도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는 정치 변화는 가능한 한 멀리 가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민주주의와 국제 사회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벨라루스의 본격적인 국가 구간 건설에 착수함으로써 우리의 조직인 국제 마르크스주의 경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당사는 다음을 대표한다.

총파업!
루카셴코 정권 타도!
반노동자 대책에 반대한다!
노동자 조직의 자유, 정치적 탄압에 맞서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국민의 권리!
정치범들을 위한 자유!
긴축정책에 맞서 민영화, 정년 인상 폐지, 무기한 고용계약!
노동자들의 의회를 위해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 즉 노동자들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